

“도슨트 해설로 동구 골목만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총장축제 기간·관광객 대상 투어 1200여명 ‘아프랑 골목투어’ 참여
인문학당·광주극장·빛의음성 방문
“수요자 중심의 특색 콘텐츠 개발”

광주 동구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펼쳐진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기간 중 충장로와 동명동 일대 골목 관광지를 도슨트 해설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인 ‘아프랑 골목투어’와 ‘골목투어 ZIP’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총장축제를 찾은 관광객 중 1237명의 관광객들이 광주 아트패스에 가입하고 아프랑 골목투어에 참여하며 동구 곳곳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아프랑 골목투어’는 △추억 발광 투어 △예술 담길 골목 투어 △총장 레트로 투어 △동명 매력 골목 투어 △빛의감성 야간 투어 등 5개의 코스로 기획됐다. 또한

골목 곳곳 관광자원의 인지도를 높여 주요 관광지를 도슨트 해설로 만날 수 있도록 해 의미와 재미를 더했다.

관광객들은 국내 유일의 단관극장인 광주극장, 여행자를 위한 시티인 여행자의 ZIP, 대표 거점시설인 동구 인문학당, 동구의 전망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뷰폴리, 소멸된 광주읍성을 미디어아트로 복원한 빛의 음성 등 동구 곳곳을 탐방하며 골목골목마다의 매력을 느꼈다.

‘골목투어 ZIP’을 통해서도 참여자와 축제 기간 동구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객이 직접 경험한 동구 관광지, 상권에 대한 정보를 분석, 수요자 중심의 관광코스 구성하기 위한 ‘동구 여행 진리지’ 코스 만들기 및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축제 기간 골목투어에 참여한 관광객에게는 ‘광주 아트패스’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가맹 상품권을 증정했다. 골목투어 부스를 찾은 관광객들을



광주 동구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동안 충장로와 동명동 일대 골목 관광지를 도슨트 해설과 함께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대상으로 진행한 럭키 드로우 이벤트는 다양한 연령층에게 흥미를 끌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도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 동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를 지

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관광코스를 구성, 동구에 체류하는 관광 인구를 증가시키고 구도심 상권·관광이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사회적경제 사랑방 개소 서구, 착한기업 소통 플랫폼

광주 서구는 지난 11일 상무역 골드클래스상가 108호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거점공간, 서구 사회적경제 사랑방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사랑방은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사랑방을 활용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컨설팅·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서구는 시설 대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오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는 교육·서비스 등을 주민들이 직접 경험하며 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사랑방은 주민들이 사회적경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착한소비, 사회적가치에 대한 관심과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가 지역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성아 기자



‘제13회 굿모닝 양림축제’ 개최 남구, 18일부터 26일까지

광주 남구가 오는 18일 ‘가을은 내 마음의 보석을 만든다’는 주제로 제13회 굿모닝 양림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굿모닝 양림축제는 광주를 대표하는 인문학 축제로 매년 가을 열리고 있다. 올해 축제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남구는 올 축제에서 각종 전시회를 비롯해 공연과 인문학 콘서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시 분야에서는 양림 문화인물전과 광주 여류 생활 도예전, 최순정 작가 전시, 버드나무 역사 사진전 등 4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인문학 콘서트는 오는 18일과 19일, 22일, 23일, 26일, 29일, 11월6일, 11월13일 등 총 8회 진행되며 가수 정미조씨와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 정지아 소설가, 박정자 배우, 장정희 소설가, 객재 구 시인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18일 개막식 무대에서는 가수 정미조씨의 공연이 펼쳐지며, 19일에는 공예거리 야외광장에서 각종 뮤지션이 출연하는 5개 공연 프로그램이 열린다. 20일부터 26일 사이에는 지역 무형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공연과 전통 국악 무대가 이어진다.

이밖에 축제 기간 양림동 곳곳에서는 수제 공예작품 만들기, 캐릭터 및 캐리커처·캘리그래피 체험, 주민과 그려보는 양림 그림여행, 펄링마를 느린 우체통, 피아노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남구 관계자는 “광주를 대표하는 인문학 축제답게 품격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축제가 광주시민의 문화적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민들이 지역 문화자원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 북구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24년도 광주북구장학회’ 장학생 185명을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장학증서 수여식.

광주 북구 제공

북구, 지역인재 양성 ‘장학생 185명’ 모집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성적·저소득·특기·동행 4개 분야

광주 북구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24년도 광주북구장학회’ 장학생 185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북구장학회 장학생 모집은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세대에 장학금을 지원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 선발인원은 △종합대학생 122명 △전문대학생 24명 △고등학생 31명 △학교밖청소년 8명 등 총 185명이다.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

상 북구에 주소와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성적 우수 △저소득 △특기 △동행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분야별 세부 신청요건은 북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종 장학생 선발자는 모집 분야별 기준에 따른 북구 내부 심사와 북구장학회의 결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결정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인당 △종합대학생 200만원 △전문대학생 150만원 △고등학생·학교밖청소년 각 7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학생 신청 자격을 갖춘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북

구장학회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인권교육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그동안 북구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뤄지는 이번 장학금 지원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된 광주북구장학회는 북구 출연금과 각계각층의 기탁금으로 조성된 장학기금을 토대로 지난해까지 16년간 2473명의 학생에게 24억여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윤준명 기자

광산구, 송정역세권센터에 활력웃장 2호점 개소

청년 대상 정장 무료 대여

광주 광산구는 청정플랫폼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활력웃장이 1호점에 이어 2호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활력웃장은 정장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활력웃장 2호점은 송정역세권센터 3층(송정로16번길 18)에 자리했으며, 청년들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자 마련했다.

2호점은 첨단권 외 구역에 확대해달라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쉬운 송정역에 개소했다.

활력웃장은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지역 대학 재학(졸업)생,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및 동등 학력 소지자(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장은 4박 5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광산구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필요 서류(광산구 누리집 면접정장대여신청 참조)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활력웃장

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활력웃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시민경제과 청년활력팀(062-960-3869)에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활력웃장 2호점은 단순히 옷을 대여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청년 지원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며 “더 많은 청년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활력웃장은 지난 9월1일 기준 연간 누적 이용자 2100여명의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대여해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상철 기자

‘미생’ 윤태호 작가 초청 아카데미 서구, 15일 구청 들불홀서



광주 서구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구청 들불홀에서 윤태호(사진) 작가를 초청해 ‘미생에서 완생으로’를 주제로 제116회 서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생’은 바둑을 그만둔 ‘장그래’가 기업에 낙하산 인턴으로 취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웹툰으로 사회초년생들의 다양한 애환이 현실적으로 담겨있다.

윤 작가는 미생으로 지난 201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만화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미생은 지난 2014년 tvN 드라마로 제작돼 많은 사랑을 얻었다.

2012년 미생을 처음 연재한 윤 작가는 2015년 시즌2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며 2024년 12년간의 이야기를 끝맺었다.

아울러 윤 작가는 대표작 미생 이외에도 이끼, 내부자들, 인천상륙작전 등의 작품에서 철저한 고증과 세밀한 내면 묘사를 통해 현실 문제들을 다뤘으며 이번 강의에서는 ‘미생’ 제작기를 이야기하며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청중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아카데미 참여는 서구청 누리집(통합예약서비스) 또는 행복교육과(062-360-7769)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구 아카데미는 주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 및 배움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 유홍준 교수 등 평소 만나기 힘든 명사들을 초청해 매달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정성아 기자